

데스크 시국



송기동
예향부장·편집국 부국장

“있나- 나는 시상 권 있는 내야 강아지야”(있잖아 너는 엄청 매력적인 나만의 강아지야)
“나의 가슴이 요로코롬 뛰어 분디 어쩌 쓰까”(나의 가슴이 이렇게 뛰는데 어떻게 하지)
“겁나게 감사한 이 맘을 어쩌고 다 말한 다요”(아주 많이 감사한 이 마음을 어떻게 전부 말할까요)
지난 8월 말 찾은 광주시 서구 상촌동 민아트갤러리. 김진아 역사사소 대표의 ‘사투리를 말하다’전에 선보인 작품들은 얼굴 가득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문구마다 표준어에서 느낄 수 없는 전라도 사투리 특유의 정감이 물씬 묻어나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사세요’라는 의미의 전라도 사투리를 문구 브랜드 명으로 삼은 김 대표는 사투리 문구류를 선보여 젊은 소비자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시·영화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부활

최근 지역 토박이말인 사투리가 문화 작품을 비롯해 드라마, 영화, 가요,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활용되고 있다. 애플 tv+에서 방영된 ‘파친코’의 경우처럼 사투리는 시대상과 지역, 국중 인물의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살려 내는 역할을 특출히 한다.

사투리가 소멸된다면...

“목포 사투리로 ‘에말이요~’란 말이 있지. 그 뜻이 뭐고 허니 내 말 좀 들어 보라는 것이야. 처음에는 그 말 뜻을 몰라서 어리둥절했어. 왜 말을 써가지 않게 그따위로 허느냐고 사비 거는 줄 알았어...”

최기종 시인의 시 ‘에말이요~’ 중 일부다.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1980년대 중반부터 목포에서 4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시인은 지난 2020년에 시집 ‘목포, 에말이요’를 펴냈다. 시인은 목포 사투리 ‘에말이요~’에 대해 처음에는 그 말 뜻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혹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지 가슴이 철렁했지만 목포 살이를 오래 하며 살갑게 느꼈다고 한다.
영암 출신 조정 시인 또한 지난 6월 서남 전라도 서사시 ‘그라시재라’를 펴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기를 힘겹게 관통해 온 우리네 할머니와 어머니의 인생사를 듣는 듯하다. 독자들은 ‘아무렴 그렇지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라는 뜻의 ‘그라시재라’로 호응하며 눈시울을 붉힌다.

“나는 꽃 중에 쫄레꽃이 질로 좋아라/ 우리 친정 앞도랑 내매 쫄레 텀불이/ 오월이면 꽃이 만발해가꼬/ 거울 가튼 물에 흑하니 비친단 말이요/ 으치께 아뵤가 물 흔들리감시/ 빨래하든 손 놓고 양거서/ 꽃기림자를 한정없이 보고 있었담께라...”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에서 청년단장 염상구는 토벌대장 임만수에게 전라도 말에 대해 한마디로 압축한다.
“전라도말맹키로 유식하고 찰지고 맛나고 한시럽고 현 말이 팔도에 워디 있습니다여.”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사투리 역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원인은 서울말을 중심으로 둔 정부의 표준어 정책과 산업화·도시화에 의해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서 거

주하는 라이프 스타일 등 다양하다. 사투리는 고어가 살아 있는 우리말의 화석이자 문화 콘텐츠의 보물 창고이기도 하다. 토박이말에는 표준어로 대체할 수 없는 뉘앙스의 표현들이 많다. 전라도 말로 ‘권 있다’가 그러한 경우이다. 귀엽다는 표현을 넘어서는 어감을 담고 있다. 만약 지역의 사투리가 모두 소멸된다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 자산을 송두리째 잃는 것일 것이다.

사라지는 토박이말 보존 노력 절실

충북 진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유종호 문학평론가는 지난 5월 ‘사라지는 말들-말과 사회사’를 출간했다. ‘호수다’와 ‘설은살’ ‘오진살’ ‘그리마’ ‘보비위’ ‘입찬소리’ ‘구메구메’ 등 생소한 말들이 눈에 띈다. 그는 어릴 적의 낱말에 대해 ‘우리가 폐기해서 잊힌 혹은 잊히면서 사라져 가는 모어(母語) 중의 모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한다.

“...사라지는 모든 것은 그 지음(知音)에게 소소한 대로 조금한 마음의 파문을 남긴다. 정답과 낯익은 것의 소멸은 바로 그대의 소멸을 알려 주는 예고 지표가 아닌가! 소멸을 수용하고 준비하라는 엄중한 전언이 아닌가!”

하루가 다르게 정신없이 질주하는 과학혁명 속에서 지역 토박이들의 생활문화가 배어있는 사투리의 미래는 어떠한가? 사투리를 살리는 길은 당연히 언중(言衆)들이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투리가 시와 소설 등 문화 작품은 물론 영화, 드라마, 가요,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활짝 꽃피우기를 기대한다.

/song@kwangju.co.kr

은편칼럼



한국환
경영학 박사

지난 10월 9일은 ‘한글날’로 훈민정음 반포 576돌을 기념하며 한글이 갖는 우리 민족의 상징성과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었다. 이에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시대를 돌아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며 국가 통치자의 리더십을 논의하고자 한다.

고려 말 조선 초에 남쪽엔 왜구, 북쪽엔 여진족의 약탈이 심했다. 그러자 세종은 왜구의 소굴이던 대마도를 이종무로 하여금 정벌케 했으며, 여진 침입에 대해서는 4군(압록강)과 6진(두만강)을 설치하여 국방을 튼튼히 했다. 또한 당시 가뭄과 흉년이 지속되자 농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측우기를 만들었고, 영농법을 정리한 ‘농사직설’, 충효에 관한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한자로 기록된 책을 읽지 못하자 세종은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세종은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일을 ‘국가 프로젝트’로 하여 집현전 학자들은 중국어, 산스크리트어, 몽골어, 여진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그런데 그 와중에 두 아들과 부인 소헌왕후까지 연이어

시대 상황에 따른 대통령의 리더십

없게 되는 가장 악재가 겹쳤고 최만길 등이 반대 상소를 올렸다. 하지만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고 ‘설득의 리더십’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이는 오로지 백성을 위한 ‘문자의 대혁명’으로, 오늘날 IT시대의 우리도 그 혜택을 맘껏 누리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김대중(DJ) 정부의 사례도 본보기가 될 수 있다. DJ는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IMF를 조기 극복했고 미·일, 라·중, 북·한 등과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으며 세계를 움직이는 거장들, 손정의·빌 게이츠·앨빈 토플러 등과 잇따라 접촉하며 미래 비전을 펼쳐나갔다. 특히 DJ는 정보시대를 예견하고 국정 과제로 ‘21세기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초고속 인터넷으로 정보의 대중화를 실현했으며,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 만들기’를 위해 컴퓨터를 대대적으로 보급·교육하여 IT강국의 기반을 조성했다. 그는 시대의 흐름에 대한 식견과 결단력, 그리고 국가의 미래 지향적 포지션으로 ‘비전 리더십’을 발휘하여 ‘정보의 혁신’을 이뤄 현재 여러 분야에서 그 결실이 이어지고 있다.

현 윤석열 정부의 출범 초기 국정 지지도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지난 9·10월 여러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24~32%, 부정 평가는 63~71.3%로 나타났다. 대부분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가벼운 언행, 경험·자질 부족, 외교 미숙, 독단적 일처리 때문이다. 고통화와 저출생, 저성장, 양극화에 대한 대책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먼저 본인을 돌아보는 한편, 국정을 냉철히 점검하여

검증되지 않은 정책과 행정 시스템을 세심히 살펴 국민이 정부를 심히 격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물가·환율·금리의 폭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의 해결책 제시가 절실한데 여야 정치권은 서로 고소·고발만 일삼고 있다. 더군다나 현 국회는 여소야대다. 이런 정국에서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거대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이 정치적 문법일진대 윤 대통령은 이재명 제1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두 번씩이나 거절하는 모습은 참 안타깝다.

현명한 리더는 귀를 크게 열어 반대의 목소리까지도 경청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 통치자는 혐미경보다는 망원경으로 세상을 넓게 멀리 봐야 한다.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되 미래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집무실을 이전했다면 현 여권을 직시하고 ‘관계 지향적 리더십’으로 야당과 협치하여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전장(戰場)에 다시 복귀할 당시 ‘12척밖에 남지 않은 배’, 그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 위기의 나라를 위해 오직 불굴의 ‘애국 리더십’으로 승리했음을 배워야 한다.

한국의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며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외교가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외교의 뚜렷한 전략과 국익에 대한 고민 없이 행하는 대통령의 잦은 외교 실책은 큰 손상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서방 선진국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한 국력’을 키워갈 동력이 필요하다. 모두 대통령의 리더십에 성패가 달려 있다.

충장축제 거리 퍼레이드에 박수를

명장면들이 동별로 진행되는 퍼레이드 사이사이에 배치돼 관람하는 시민들의 흥을 돋우었다.

시민들에게 더욱 박수를 받았던 것은 여러 단체가 깡깡소처럼 등장하여 눈길을 끈 이벤트였다. 대학생들의 태권도 시범이나, 풍물패, 쌍채춤 보존회, 광주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 서창 만드리 보존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출연하여 동구만을 위한 축제가 아닌 광주시민의 축제로서의 격을 올렸다고 본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들은 자국의 고유의 의상을 입고 흥겹게 춤추며 길거리 관객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의 퍼러디나 유네스코, 필리핀 맨스팀 등의 출연도 멋진 기획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충장축제는 19회째였다. 2004년 ‘추억의 7080’이란 주제로 시작한 충장축제가 20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유사한 주제의 반복으로 한때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아지고, 교통 통제로 불편하며 충장로 상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16회와 17회가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고, 작년 18회는 코로나로 인해 규모가 축소된 듯하다가 올해에는 참신하고 도전적인 기획으로 많은 시민의 호응 속에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 함께 거리 퍼레이드가 충장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충장축제를 위해 거리 퍼레이드를 중심으로 한두 가지 아쉬웠던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대형 전광판을 통해 행사의 안내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전광판이 금남로 1무대 앞에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앞에서만 볼 수 있었고, 시민 대부분이 자리하고 있던 금남로 2~3가 거리에는 어떠한 안내도 없어 언제 무슨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었다. 금남로 중간중간에 대형 전광판을 만들어서 행사의 순서와 주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드론을 통해 참석한 시민들의 모습도 담아주는 친절함이 더해졌더라면 그곳에 모인 많은 시민이 더욱 즐겁게 퍼레이드를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전광판을 통해 진행되는 상황과 준비 과정을 소개해 주었다더라면 금남로 3~4가 쪽에서 들린 음악과 합성이 사전 행사인지, 본 행사인지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며,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답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일 거리 퍼레이드에는 행사를 주관한 주최 측과 몇몇 인사들의 사진이 현수막을 통해 펼쳐졌다. 굳이 참석 인사들이 행사장 주 무대에 앉아 있었는데 현수막 사진을 들고 올 필요가 있었을까? 차라리 함께 걸어서 등장하며 시민들과 사진도 찍고 어우러지는 무대였으면 더욱 좋았을 뻔했다.

내년에 진행될 충장축제에서는 더욱 멋진 거리 퍼레이드를 기대해 본다. 이번에는 ‘월드 페스티벌’이란 주제로 진행했었는데, 충장축제는 그 시작이 ‘추억의 충장축제’였다든 초심을 지켜가면서 질적인 성장과 세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 거리 퍼레이드에서 가장 돋보인 것은 역시 흥에 겨운 풍물패 공연과 거북선의 등장 등 우리의 전통문화였다고 생각한다.

社說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공론화 절차부터

광주시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8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제동이 걸렸다. 양 지역 지방의회가 비용 대비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동인한 처리를 보류한 것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해 5월 공동 유치 계획을 전격 발표한 이후 11월 공동유치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유치 작업에 나섰다. 양 도시는 올해 말까지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대한체육회에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에 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유치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구상이었다.

한데 첫 공시 절차인 지방의회 동의 과정부터 제동이 걸렸다. 대구시는 그제 ‘공동 유치 동의안’을 시의회 상임위에 상정했으나 논란 끝에 유보됐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어제 의원 간담회에서 분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다. 보류의 가장 큰 이

유는 시비만 각각 22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등 예상 사업비가 1조 원을 넘지만 경제성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 있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등은 성명서를 통해 “대회 유치에 전문학적 예산이 드는 데 비해 효과 검증 절차도 없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동의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그동안 대규모 국제대회 개최 경험 등을 토대로 ‘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자신하고 있다. 성공하면 국제 스포츠도시로 도약하고 달빛동맹과 영호남 상생을 공고히 다지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흥행을 장담할 수 없는 국제대회를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대회 개최 이후 빛더미에 허덕이는 도시들도 적지 않다. 광주시는 지금까지도 공론화 절차를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지역신문 발전기금 축소·통합해선 안 된다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지난 2004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경영 여건이 어려운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과 여론의 다원화를 위해 지원되고 있다. 한데 이 기금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언론진흥기금과 사업 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성격이 다른 두 기금을 통합하려 하고 있다. 예산 역시 올해 114억 원에서 내년에는 95억 원으로 축소됐다. 그것에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핵심 이유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은 “기획재정부가 2016년에 이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은 존치 평가나 기금 삭감 과정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신문은 지역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보도를 하고 있고 가짜 뉴스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충분히 보호받

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개호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도 “지난해 신문산업 실태조사 결과 매출액의 80.7%를 서울이 차지할 만큼 지역 언론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 봉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하고 규모 또한 축소하려 하고 있는데 두 기금은 성격과 취지가 전혀 다르다. 언론진흥기금은 신문 전발을 지원하는 반면에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 지원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지역신문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정부의 지원 규모는 되레 매년 줄고 있다. 정부는 퇴행적인 기금 통합과 축소를 중단하고, 고사 위기의 지역 언론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for Busking featuring the text '無等鼓' and '충장로 버스킹'. It includes details about busking events on Chungjang-ro, such as the 2022 Busking Festival and the 2023 Busking Festival, with dates and locations.

기고



양성관
동강대 교수

퍼레이드란 축제나 축하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시가지지를 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9회 충장축제의 거리 퍼레이드가 지난 14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여 동안 금남로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2~3년 주춤했던 충장축제가 팬데믹이 잠잠해지면서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토요일 오후라서 많은 시민이 취회 측에서 준비해 준 의자에 점심때부터 자리를 잡고 퍼레이드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죽고 우리 동네 주민들이 행사에 출연한다니 기대감이 얼마나 크겠는가?

퍼레이드는 광주시 동구에 속하는 13개 동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수창초등학교에서 5·18민주광장 입구까지 약 1.9km를 이동하면서 펼친 역작 드라마였다. 올해 축제의 주제인 ‘월드 페스티벌’에 맞추어 이벤저스나 라라랜드, 알라딘, 겨울왕국, 미녀와 야수, 스타워즈, 아바타, 해리포터 등 해외 유명 영화의 주요 장면을 패러디하여 보여줌으로써 남녀노소가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었다. 여기에 우리나라 인기작이라 할 수 있는 택시 운전사와 오징어 게임, 명랑, 씨니 등 추억의 영화

Table with Kwangju Ilbo header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details like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인내', '정 치 부 220-065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and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